

[종합·해설]

서울시의회發 뇌물 파문 여야 전면전

홍준표 “합법자금땐 거론한 사람 징역 가야”

김민석 “말 바꾸지 말고 의혹이나 해명하라”

한나라 강승규 의원, 김민석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의회 뇌물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첨예화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서울시의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문제를 주제로 확장을 시도하고 나섰고, 이에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정치테러”라며 고소·고발을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당초 후원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비공식적 언론 질문에 ‘총선시기에 받았다’고 말했으나 여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총선 후인 4월 28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며 “만일 시의회 의장 입후보 예정자임을 알고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 기자실에서 “정치자금 32조 2항 특정행위와 관련 기부 조항이 있는데 누구든 정치자금과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총선과 무관하게 서울시의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시의원이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냈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계은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후원금을 받은 시기에 대해 왜 말을 바꾸는지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제된 서울시의원들에 대해 민주 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계안 전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를 적극 건의하다”고 말했고, 주승용 민선플랫워크 간사는 “준 사람(서울시의장) 이외에 받은 사람(시의원 30명) 전원도 탈당, 제명 시키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22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윤석용, 진성호 의원도 김 최고위원을 고소할 방침이다. 이들 의원은 김 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 의원의 선거 사무실이나 유세장에서 시의원들의 뇌물을 오갔고, 김 귀환씨가 ‘시의원들에게 주면서 국회의원에게 안 줬겠느냐’고 말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입수했다”고 언급한 것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후원금) 불법자금이면 정계은퇴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합법자금이라면 이를 거론한 사람은 징역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이 어제 검찰로 송치됐으니

엄밀히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지적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안 제시

상임위원장 배분 절점 못찾아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될 경우 10개월내 자동으로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처리되도록 하는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서감원 원내 수석부대표와 원구성 관련 회담을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5’, ‘1+3’ 조건을 받는다면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 뒷으로 배정 할 용의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1+5’는 일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개 월내 상정하고 5개월내 심의를 끝마치면 법사위로 자동 이송되는 것을, ‘1+3’은 법사위에 법안이 이송되면 다시 1개월내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개월내 심의를 끝마치면 자동으로 본

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뜻한다.

서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부조건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주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다만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김황식 감사위원장 내정자를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인사청문위원 명단을 23일 제출키로 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활동하다 임기만료로 폐지된 국회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특위와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를 즉각 구성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식수비율에 따른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한나라당의 ‘현재 의식수기준’(172석) 주장과 민주당의 ‘총선 당시 기준’(153석) 주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의 소관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문광위가 맡아야 한다’, ‘별도의 상임위를 만들자’고 주장,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對北 복안 있지만 밝힐 단계 아니다

금강산 진상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곧 발표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정부는 22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북측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북안이 있지만 현재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공식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전달할 통로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이 계속 진행될 때 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복

안이 있다”면서 “아직 밝힐 시기

가 아니며 진행과정에 따라 자연

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복안’에는 남북관계에 서 취할 수 있는 각종 대북 압박

조치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입장 변화 촉구, 남북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또 사건 당일 북측 여성 초병의 공포탄 발사에 놀란 다른 초병이 박씨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 사실상 부인하고 “진상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진행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합동조사단은 나중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현지에 가서 조사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활동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자관보가 22일 오전 아세안+3 연례장관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 “北, 50대 女관광객 사살 이해 안돼”

한·미 6자대표 회동…남북 외교장관 회담 어려울 듯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

당 차관보는 22일 금강산 피살사

건과 관련, “50세가 넘은 중년의

여성관광객을 사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싱가포르 상그

릴라 호텔에서 가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금강산 피살사

건에 대한 김 본부장의 설명을 들

은 뒤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이 문

제 조사에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내

(한국과의) 대회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6자회담에

서 한·미·일 3자회동이 계속되느

냐’는 질문에 “6자회담 전전에 아

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일 간 독도문제에 관한 질문을

했고 우리측이 이번 사태의 경위

와 배경, 한국 정부의 입장 등에 대

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측은 일본의 중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

도 영유권 내용을 명기한 것의 문

제점과 의미에 대해 소상히 설명

했으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고 전했다.

힐 차관보는 특히 금강산 피살사

건에 대한 김 본부장의 설명을 들

은 뒤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이 문

제 조사에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내

(한국과의) 대회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6자회담에

서 한·미·일 3자회동이 계속되느

냐’는 질문에 “6자회담 전전에 아

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 개인적으로는 국민 정서나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이 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3국 공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힐 차관보가 미국의 6자 수석대표이기도 하지만 동아태 차관보니까 동북아 문제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힐 차관보가 먼저 금강산 사건 및 독도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연례장관회의(ARF)를 계기로 추진했던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북측의 반대로 성사되기를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은 22일 “북측에 외교장관회담을 갖자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북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정식 남북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성관광 예약 취소 2,390명

금강산 사고 후 교사·공무원 단체 등 이탈

금강산 피격 사망 사고가 발생

한 뒤 개성 관광을 취소한 예약객

이 2천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22일 개성은 찾은 남측 관

광객은 277명으로 평소 400여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 금강산 관광

중단의 여파가 개성 관광에도 미

치는게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 관계자는 “개성 방문객의 예약 취소가 2천 명이 넘은 것은 주로 교사나 공무원 단체 등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여행을 가겠다면서 예약을 하는 고객도 늘어 이 부문을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22일 277명이 개성을 방문함으로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개성의 누적 방문객이 8만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무안→장사(장가게) 직항

매주 일·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특유의 고급격! 가격은 다운!!

GOLF

4일부터 출발가격 ₩ 899,000-

여행 예약 및 출발 정보는 전화: 080-220-6070

www.ktjet.co.kr